

교과서 속

영화 감상 하기



서양화

1. 13살의 자화상 뒤러_5
2.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_7
3. 아이들의 놀이 브뤼헬_9
4. 농민의 결혼식 브뤼헬_11
5. 채소 기르는 사람 아르침볼도_13
6.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다비드_15
7. 이삭줍기 밀레_17
8. 발레 수업 드가_19
9. 14살 어린 무용수 드가_21
10. 생각하는 사람 로댕_23
11.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 쇠라_25
12.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쇠라_27
13. 해바라기 반 고흐_29
14.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 반 고흐_31
15. 별이 빛나는 밤 반 고흐_33
16. 병과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 세잔_35

17. 타히티의 여인들 고갱_37

18. 건초 더미 모네_39

19. 수련 연못 모네_41

20.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몬드리안_43

21. 절규 몽크_45

22. 세네치오 클레_47

23. 구성 8 칸딘스키_49

24. 기억의 지속 달리_51

동양화

25. 전 신사임당필 초충도 신사임당_53

26. 인왕제색도 정선_55

27. 서당 김홍도_57

28. 무동 김홍도_59

29. 연소답청 신윤복_61

30. 고양이와 참새 변상벽_63

I. 13살의 자화상 (뒤러)



I. 13살의 자화상 (뒤러)

작가 국적	독일	작가 생몰년	1471 ~ 1528
작품 재료	종이에 은필화	작품 크기	27.5×19.6cm
제작 연도	1484년 작	작가 원어명	Dürer, Albrecht

13살의 자화상(종이에 은필화/27.5×19.6cm/1484년 작)

뒤러는 렘브란트, 반 고흐와 함께 많은 자화상을 남긴 화가로 유명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금세공 기술을 배웠지만,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13세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 상반신을 약간 측면으로 향하게 하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눈, 코, 입의 특징과 머리에 쓴 모자, 흘러내린 머리카락 등을 아주 정밀하게 표현하였으며, 자신의 외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표정과 인상 등에서 내적인 마음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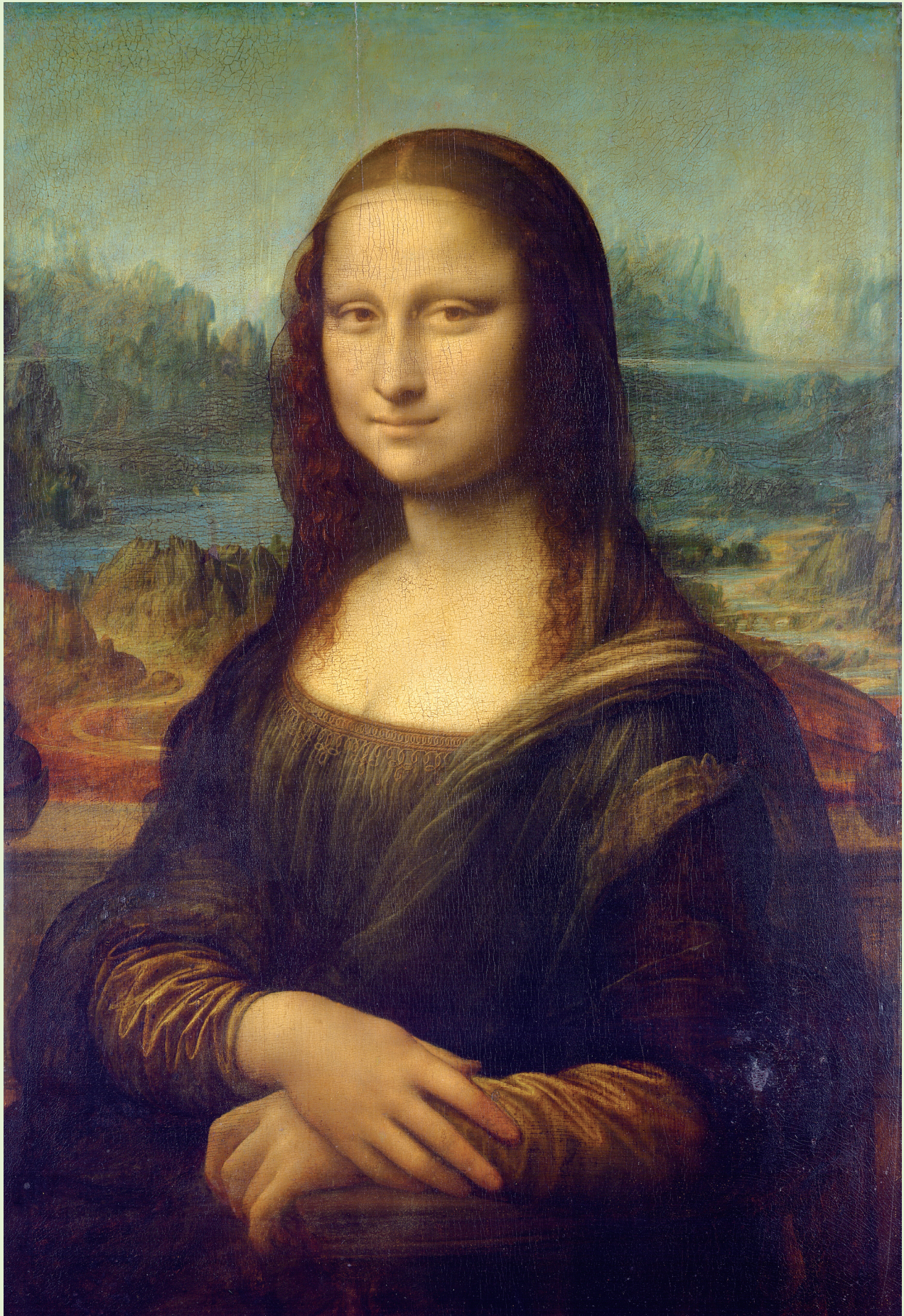
「13살의 자화상」은 현존하는 작품 중 최초의 자화상으로 인정한 작품이다. 그 이유는 이전의 자화상은 있는 그대로 그려 단순한 모방에 그쳤다면, 뒤러의 자화상에는 화가의 자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뒤러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도안가, 판화가, 작품 해설가로도 활약하였다.

뒤러(Dürer, Albrecht/독일/1471~1528)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판화가로 목판화, 동판화와 회화에 뛰어났으며, 종교적인 내용과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대표작으로 「자화상」, 「아담과 이브」, 「기도하는 손」 등이 있다.

2.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2.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가 국적	이탈리아	작가 생몰년	1452~1519
작품 재료	목판에 유채	작품 크기	77×53cm
제작 연도	1503~1506년 작	작가 원어명	Leonardo da Vinci

모나리자(목판에 유채/77×53cm/1503~1506년 작)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코 델조콘도의 부인 엘리사베타를 그린 초상화로, 정숙한 여인의 신비스러운 미소로 유명하다. ‘모나(mona)’는 유부녀 이름 앞에 붙이는 이탈리아어 경칭이고, ‘리자(Lisa)’는 초상화의 모델이 된 여인의 이름이다. 즉, 한국어로 하면 ‘리자 여사’라는 뜻이다.

이 작품은 희미하게 미소짓고 있는 여인을 그린 초상화로,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하여 윤곽선이 나 경계선 없이 엷은 안개가 덮인 듯한 효과를 주고 있다. 구도는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초상화 구도였던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다. 또한, 인물을 배경보다 높게 배치하는 방식은 오늘날에는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드문 일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해서 미완성작으로 남겨둔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려 완성하였다.

– 출처: 위키백과

*스푸마토 기법: 이탈리아어로 ‘흐릿한’ 또는 ‘자욱한’을 뜻하는 말로, 인물의 윤곽선을 일부러 흐릿하게 처리해 경계를 없애는 방법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이탈리아/1452~1519)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났으며, 15~16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예술가이다. 대표작으로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이 있으며,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불린다. 15세 때부터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제자가 되어 회화, 조각 등 여러 분야에서 훈련을 받았다. 밀라노 대공의 후원으로 17년간 밀라노에 머무르면서 「최후의 만찬」 등의 대작을 그렸다. 회화, 건축, 기계, 해부학 등에서 방대한 업적을 남겼다.

3. 아이들의 놀이 (브뤼헐)



3. 아이들의 놀이 (브뤼헬(부))

작가 국적	네덜란드	작가 생몰년	1525 ~ 1569
작품 재료	목판에 유채	작품 크기	116x161cm
제작 연도	1560년 작	작가 원어명	Bruegel, Pieter(the Elder)

아이들의 놀이(목판에 유채/116x161cm/1560년 작)

이 작품은 250여 명의 아이와 90여 가지의 놀이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선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대각선 구도를 사용하였다. 다양한 인물 군상들과 마을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골렘쇠 놀이, 말뚝 박기, 공기놀이, 말타기 놀이, 물총 놀이, 술래잡기 등 우리 어린 시절에 즐겼던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난간에서 장난치는 아이들과 나무 철봉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 아이들끼리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도 보인다. 이 당시의 아이들은 집 안일을 거들고 힘든 일도 함께해서인지 이 작품 속에 보이는 아이들은

모두 어른스러운 복장을 하고 있다.

작가는 당시 유행하였던 귀족 중심의 주제에서 벗어나 농민들의 유머와 해학, 시민의 일상과 생활을 즐겨 그렸다.

브뤼헬(부)(Bruegel, Pieter(the Elder))/1525~1569/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북유럽 르네상스의 대표적 화가이다. 그의 초기 작품은 주로 민간 전설, 속담 등을 주제로 그렸으나, 후에는 사회 불안과 혼란에 대한 격렬한 분노 등을 종교적 제재를 받아서 표현하게 되었다. 대표작으로 「바벨탑」, 「눈 속의 사냥꾼」, 「농민의 결혼식」, 「네덜란드의 속담」 등이 있다.

4. 농민의 결혼식 (브뤼헬)



4. 농민의 결혼식 (브뤼헬(부))

작가 국적	네덜란드	작가 생몰년	1525 ~ 1569
작품 재료	목판에 유채	작품 크기	114x164cm
제작 연도	1566 ~ 1569년 작	작가 원어명	Bruegel, Pieter(the Elder)

농민의 결혼식(목판에 유채/114x164cm/1566~1569년 작)

16세기 화가 브뤼헬의 대표작으로, 농가의 혼례 풍경을 사실적이면서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작품은 브뤼헬의 작품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실내의 장면을,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있다. 그림은 추수가 끝난 후, 농가 헛간에서 열린 피로연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작품에서 축하객들은 혼례식은 뒷전이고 게걸스럽게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곤궁하고 배고프기 때문인데 그것은 혼례식이 열리고 있는 장소와 가난한 세간, 소박한 진칫상으로 도 확인할 수 있다.

브뤼헬은 이 작품과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춤추는 장면을 담은 몇 점의 그림 때문에 그는 ‘농부 브뤼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농부

브뤼헬’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농민의 일상과 농촌 풍경을 즐겨 그렸다. 그의 그림에는 당시 네덜란드 농민들 특유의 예나그림과 신랄한 유머, 해학과 기지가 가득하다. - 출처: 무신백과

브뤼헬(부)(Bruegel, Pieter(the Elder)/1525~1569/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북유럽 르네상스의 대표적 화가이다. 그의 초기 작품은 주로 민간 전설, 속담 등을 주제로 그렸으나, 후에는 사회 불안과 혼란에 대한 격렬한 분노 등을 종교적 제재를 받아서 표현하게 되었다. 대표작으로 「바벨탑」, 「눈 속의 사냥꾼」, 「농민의 결혼식」, 「네덜란드의 속담」 등이 있다.

5. 채소 기르는 사람 (아르침볼도)



5. 채소 기르는 사람 (아르침볼도)

작가 국적	이탈리아	작가 생몰년	1527 ~ 1593
작품 재료	목판에 유채	작품 크기	35x24cm
제작 연도	1590년 작	작가 원어명	Arcimboldo, Giuseppe

채소 기르는 사람(목판에 유채/35x24cm/1590년 작)

이 작품은 채소 기르는 사람의 모습을 양파, 무, 당근 등이 가득 찬 바구니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을 뒤집어 보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 커다란 둥근 양파는 두 뺨을, 길쭉한 당근은 코로, 두 개의 겹쳐진 버섯은 입술을 나타내고 있다.

「채소 기르는 사람」은 아르침볼도의 독창적인 예술적 발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는 작품이다. 즉 아르침볼도는 인물의 묘자 역할을 하는 검은색의 그릇을 아래로 위치시켜 그 속에 각종 채소가 들어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처럼 원래의 작품은 일반적인 정물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평범하기만 했던 정물들은 인물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작가는 정물화와 인물화를 넘나드는 이중성을 의도한 것이다.

아르침볼도의 인물화를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물로 구성된 기이

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기법으로 작가의 유머 넘치는 기발함을 엿볼 수 있다.

- 출처: The Bridgeman Art Library

아르침볼도 (Arcimboldo, Giuseppe/이탈리아/1527~1593)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으며, 화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인물의 얼굴을 꽃이나 과일, 채소 등으로 바꾸어 구성하는 독특한 기법의 화풍으로 유명하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의 눈에 띄어 20여 년간 궁정화가로 지냈다. 페르디난트 1세의 아들 막시밀리안 2세와 손자 루돌프 2세에 이르기까지 3대를 섬기면서 궁에 머물렀다. 유희와 소모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물」, 「불」 등이 있다.

6. 나폴레옹 세기의 역사 (3부)



6.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다비드)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748 ~ 1825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621x979cm
제작 연도	1805 ~ 1807년 작	작가 원어명	David, Jacques-Louis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캔버스에 유채/621x979cm/1805~1807년 작)

이 그림은 나폴레옹과 조제핀이 황제와 황후로 즉위하는 대관식을 그린 작품으로, 1805년부터 1807년까지 제작되었다.

1804년 스스로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제정(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하여 규모가 큰 그림을 네 개 그리도록 명하였다.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던 다비드는 그중 「생 드 마르스에서 의 군기 수여식」과 이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을 그리게 되었다.

이 작품은 나폴레옹이 유럽 제국을 지배하는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다비드는 사실적 묘사를 위해 노력했으며, 나폴레옹의 의견에 따라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3년 만에 완성하였다.

대관식은 1804년 12월에 파리의 노트르담 사원에서 거행되었다. 황제는 월계관을 쓰고 앞으로 나와서 꿇어앉은 황후 조제핀에게 왕관을 주고 있다. 가운데 깊숙이 들어간 높은 곳에는 황제의 모친이 있고, 그 아래 장군과 고관들이 줄지어 있는데 좌우에 줄지는 수많은 인물도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 출처: 위키백과

다비드(David, Jacques-Louis/프랑스/1748~1825)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왕정 시대인 루이 16세 때 궁정화가였고, 나폴레옹의 시대에는 그의 최측근으로 황제를 위한 선전적인 그림을 도맡아 그렸다. 대표작으로 「마리의 죽음」, 「자화상」,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서재에서의 나폴레옹」 등이 있다.

7. 이삭줍기 (밀레)



7. 이삭줍기 (밀레)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14~1875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84×112cm
제작 연도	1857년 작	작가 원어명	Millet, Jean-François

이삭줍기(캔버스에 유채/84×112cm/1857년 작)

이 작품은 여인들이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여자들 셋이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다. 이 당시에는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 농장주가 추수하고 난 뒤 떨어져 있는 남은 밀 이삭을 주워 가도록 허락한 것이다. 남아있는 곡식의 양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보다 한 알갱이라도 더 주워 모으려면 잡사라도 허리를 펴 여유가 없었다.

이삭을 줍는 세 여인 뒤로 어렴풋이 말 탄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추수와 이삭줍기를 감독하는 농업감독관이다. 그리고 수레가 터져 나가

도록 풍성하게 밀 단을 쌓고 떠날 채비를 하는 마차가 있다.

밀레의 「이삭줍기」는 이처럼 잘사는 사람의 넘치는 풍요와 처절하고 빈곤한 사람의 모습을 상반되게 보여 주고 있다.

밀레(Millet, Jean-François/프랑스/1814~1875)

프랑스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농부들의 삶을 관찰하며 자랐다. 35세가 되는 해 파리를 떠나 한적한 시골인 바르비종으로 이시하여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농촌을 배경으로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이삭줍기」, 「만종」 등이 있다.

8. 발레 수업 (드가)



8. 발레 수업 (드가)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34~1917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85×75cm
제작 연도	1871~1874년 작	작가 원어명	Degas, Edgar

발레 수업(캔버스에 유채/85×75cm/1871~1874년 작)

이 작품은 유쾌한 시선과 세밀한 관찰력으로 발레 수업 중인 무용수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여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사진처럼 발레 수업의 한순간을 포착하였다.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의 화면에는 발레 수업을 받는 다양한 모습의 무용수들이 보인다. 무용수의 얼굴이 무척 옛되어 보인다. 연습에 열중하는 무용수도 있고, 발레의 우아한 동작을 따라 하는 무용수도 있다. 맨 앞쪽 허리에 손을 대고 등을 보이고 있는 무용수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다. 하지만 몇몇 무용수는 등을 굽거나 기지개를 켜면서 지루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재미있는 모습도 보인다.

드가는 파리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자주 방문해서 발레리나를 그렸다. 눈이 나빠서 강한 빛이 비치는 야외보다는 발레 공연장이나 연습실 등 주로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더욱 나빠져 강한 색의 그림 재료보다는 부드러운 파스텔을 많이 사용하였다.

- 출처: 천재학습백과

드가(Degas, Edgar/프랑스/1834~1917)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인상주의 화가이다. 주로 움직이는 인체를 그린 소묘의 대가로, 발레리나를 묘사한 회화, 드로잉, 청동상 등의 작품이 많다. 파스텔화를 잘 그렸으며, 색채가 풍부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대표작으로 「무대 위의 발레리나」, 「3인의 무희」, 「14살의 어린 무용수」 등이 있다.

9. 14살 어린 무용수 (드가)



9. 14살 어린 무용수 (드가)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34~1917
작품 재료	청동, 직물	작품 크기	35.2×24.5×98cm
제작 연도	원작 1879~1881년 작 청동 1921년 이후 작	작가 원어명	Degas, Edgar

14살의 어린 무용수(청동, 직물/35.2×24.5×98cm/1921년 이후 작)

드가의 재능은 회화에서뿐만 아니라 조각에서도 두드러졌다. 조각은 드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의 모습과 움직임, 자세를 연구하기에 적절하였다.

이 작품은 드가의 조각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조각 작품으로서 유일하게 드가가 자신의 스튜디오를 벗어나 전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881년 여섯 번째 인상주의 전시에서 선보인 이 조각은, 전시를 위해 기획되었기에 여러 장의 드로잉과 누드로 연습한 예비본이 존재하고 있다. 원본은 왁스로 제작되었으나 소실되었고, 이 작품은 1922년 이후 주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 총 29개로 알려진 청동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의 모델은 극장의 어린 소녀 무용수이다. 크기는 실제의 삼분의 이 정도로, 관객이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정도이다. 드가의 청동 조각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와 가까운 사실주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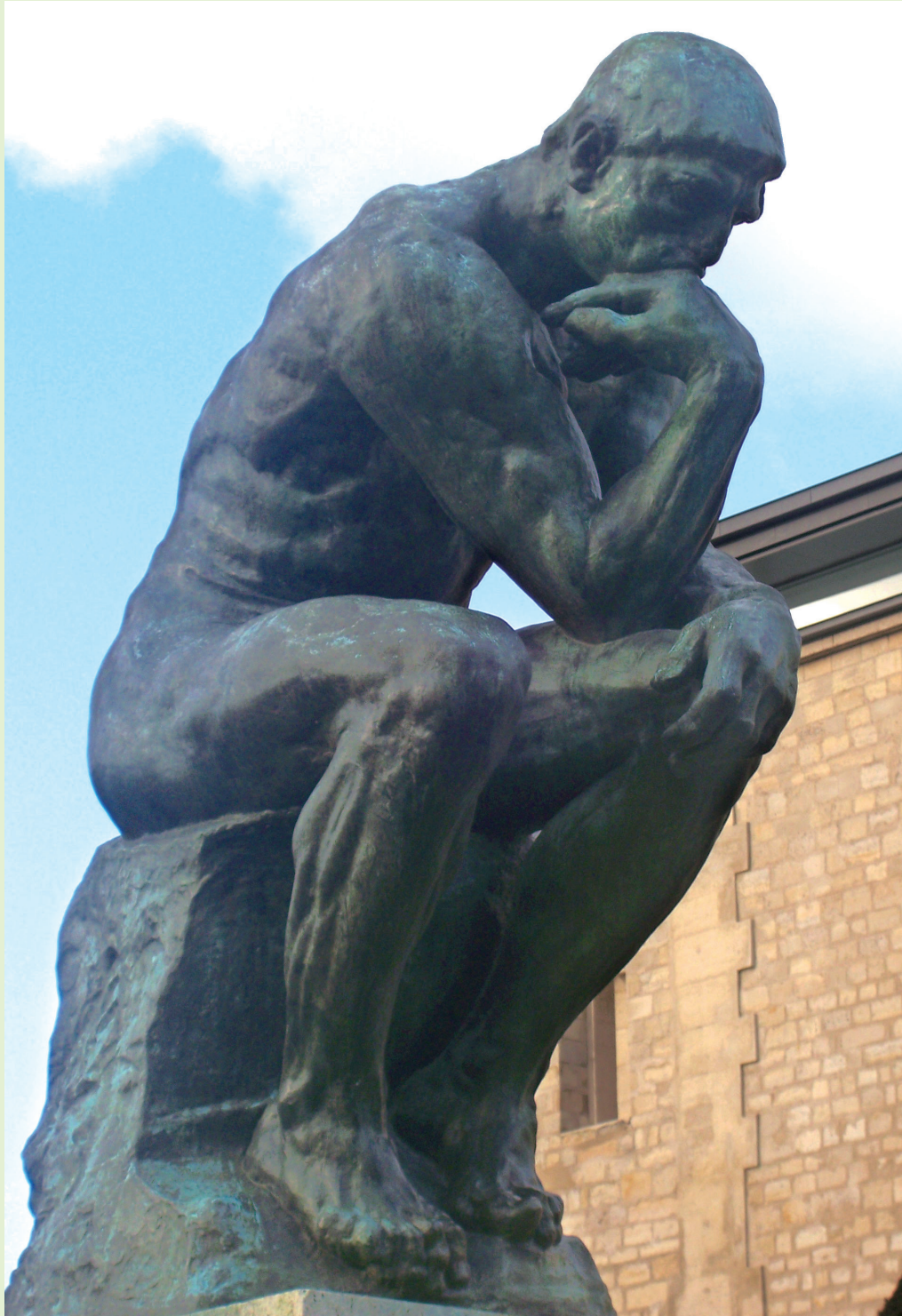
청동은 근육의 형태가 드러나 있으며 왁스를 칠해 실제 피부와 매우 흡사해 보인다. 조각은 직물로 짠 발레복을 입고 있으며, 왁스로 칠한 캔버스 천으로 된 발레 슈즈를 신고 있다. 이러한 소재의 혼합은 진짜 소녀가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 출처: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그림 출처: National Gallery of Art

드가(Degas, Edgar/프랑스/1834~1917)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인상주의 화가이다. 주로 움직이는 인체를 그린 소묘의 대가로, 발레리나를 묘사한 회화, 드로잉, 청동상 등의 작품이 많다. 파스텔화를 잘 그렸으며, 색채가 풍부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대표작으로 「무대 위의 발레리나」, 「3인의 무희」, 「발레 수업」 등이 있다.

10. 생각하는 사람 (로댕)



10. 생각하는 사람 (로댕)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40~1917
작품 재료	청동	작품 크기	높이 186cm
제작 연도	1880년 작	작가 원어명	Rodin, Auguste

생각하는 사람(청동/높이 186cm/1880년 작)

「생각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로댕의 「지옥의 문」 상부 중앙의 조각으로 제작되었다. 「지옥의 문」은 로댕이 중세의 이탈리아 시인인 단테(Alighieri Dante, 1265~1321)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조각으로, 문에는 지옥으로 향하는 인간의 고통과 번뇌, 죽음을 보여 주는 인물 조각상들이 펼쳐져 있다. 로댕은 여기에 이들을 재판하는 절대 신인 그리스도의 형상 대신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생각에 잠긴 사람의 조각상을 문의 상부 중앙에 위치시켰고, 이는 고뇌하는 시인 단테를 염두에 두어 제작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1888년에 「지옥의 문」에서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와 로댕에 의해 실물 크기보다 더 크게 제작되었고, 이후 기념비적인 조각상으로 자리 잡았다. 어깨와 팔 부분의 비율이 다리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구성되었는데 이는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관람자의 시선을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인체 비율의 부조화는 조각상의 옆에서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데, 상대적으로 큰 머리와 어깨, 팔로 인해 조각상은 전체적으로 더욱 육중한 느낌을 준다.

- 출처: 프랑스 로댕 미술관, 그림 출처: 위키백과

로댕(Rodin, Auguste/프랑스/1840~1917)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살아서 움직이는 듯 사실적인 조각 작품으로 조각에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은 조각가로 유명하다. ‘현대 조각의 아버지’로 불린다. 대표작으로 「청동 시대」, 「생각하는 사람」, 「칼레의 시민」 등이 있다.



지옥의 문

II. 아스니에르에서의 목욕이 (사회)



II.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 (쇠라)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59 ~ 1891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201x300cm
제작 연도	1883 ~ 1884년 작	작가 원어명	Seurat, Georges-Pierre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캔버스에 유채/201x300cm/1883~1884년 작)

이 그림은 프랑스의 아스니에르에서 물놀이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점묘화의 시작을 알린 쇠라의 대표 작품이다.

그림의 배경은 아스니에르라고 일컬어지는 파리 근교의 쉐강 강변이다. 배경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쇠라의 다른 그림의 배경이 된 그랑드 자트섬이 보인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여름날의 열기에 취해 몽롱해진 느낌을 전해 준다. 화면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놀고 있는 풍경이 묘사되어 있지만, 이들이 주는 인상은 매우 질서정연하다.

쇠라는 이 그림을 구상하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예비 스케치를 하였고, 습작도 여러 차례 하였다. 그리고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 안정감 있는 구도를 창조해 냈다. 점묘법을 통해 표현된 그림은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의 풍경을 보여 주고 있다.

- 출처: 무신백과

쇠라(Seurat, Georges Pierre/프랑스/1859~1891)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신인상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다. 색채학과 광학 이론을 연구하여 그것을 창작에 적용해 점묘화법으로 발전시켰다. 순수 색의 분할과 그것의 색채 대비로 신인상주의의 확립을 보여준 작품을 그렸다. 대표작으로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포즈를 취하는 여인들」이 있다.

12. 그랜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사회)



12.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쇠라)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59 ~ 1891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207x308cm
제작 연도	1884 ~ 1886년 작	작가 원어명	Seurat, Georges-Pierre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캔버스에 유채/207x308cm/1884 ~1886년 작)

신인상주의의 창시자인 쇠라의 대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일요일 오후 파리 근교의 그랑드 자트섬에서 맑게 갠 여름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다양한 색채와 빛, 그리고 형태들을 점묘화법을 통해 꼼꼼하게 표현하고 있다.

쇠라는 빛의 분석이 인상주의의 수법을 따르면서도 인상주의의 본능적이며 직감적인 제작 태도가 빛에만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형태를 확산시키고 있는 점에 불만을 느끼고, 여기에 엄밀한 이론과 과학성을 부여하고자 도모하였다.

세심한 구성과 단순화된 기하학적인 형태가 강조된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를 그리기 위해서 유채 물감으로 70점 이상의 예비 스케치와 드로잉을 하였다.

색채를 원색으로 환원, 무수한 점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이른바 점묘화법(Pointillism)을 도입함으로써 통일성을 유지하고 인상주의의 색채 원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인상주의가 무시한 조형 질서를 다시 구축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런 점에서도 이 그림은 오늘날 매우 의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 출처: 위키백과

쇠라(Seurat, Georges Pierre/프랑스/1859~1891)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신인상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다. 색채학과 광학 이론을 연구하여 그것을 창작에 적용해 점묘화법으로 발전시켰다. 순수 색의 분할과 그것의 색채 대비로 신인상주의의 확립을 보여준 작품을 그렸다. 대표작으로 「아스니아르에서의 물놀이」, 「포즈를 취하는 여인들」 등이 있다.

13. 해바라기 (반 고흐)



13. 해바라기 (반 고흐)

작가 국적	네덜란드	작가 생몰년	1853~1890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92×73cm
제작 연도	1888년 작	작가 원어명	van Gogh, Vincent

해바라기(캔버스에 유채/92×73cm/1888년 작)

「해바라기」는 반 고흐가 그린 정물화이다. 그는 해바라기를 소재로 하여 여러 작품을 제작하였다. 고흐가 프랑스 파리에서 남부의 아를로 거처를 옮겨 그곳에서 동료 화가인 고갱과 함께 작업하기를 기대하면서 작은 집을 빌려 노란색으로 칠한 후 해바라기 그림을 벽에 장식하였다. 이 작품은 그때 그려진 「해바라기」 연작 가운데 하나로 고흐에게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밝은 노랑에서 붉은 느낌의 노랑까지 해바라기와 꽃병, 배경, 바닥 등 온통 노란색으로 채색하였다. 고흐 특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화병의 꽃들을 실제 꽃처럼 생생한 질감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속 화병에 꽂혀있는 15송이의 해바라기를 보면, 가운데 있는 꽃송이를 중심으로 위, 아래에 동그란 꽃송이가 배치되어 있는데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세 개의 꽃송이도 대칭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아래 양쪽의 두 송이도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인 반 고흐는, 자신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보다는 빛과 색채를 통한 감각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해바라기는 격정적인 자신의 감정을 대변하는 영혼의 꽃으로, 그의 짧고 비극적인 삶과 예술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

반 고흐(van Gogh, Vincent/네덜란드/1853~1890)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짧고 구불구불한 필채와 강렬한 색채로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었다. 대표작으로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아를의 침실」, 「자화상」 등이 있다.



노란 집 (캔버스에 유채/71×91cm/1888년 작)

14.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 (반 고흐)



14.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 (반 고흐)

작가 국적	네덜란드	작가 생몰년	1853~1890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60×49cm
제작 연도	1889년 작	작가 원어명	van Gogh, Vincent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캔버스 유채/60×49cm/1889년 작)

고흐는 1888년 프랑스 아를에 있는 '노란 집'을 세내어 화가들끼리 모여 함께 작업하고 토론하는 작업실 겸 살림집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파리에 머물고 있던 고갱을 초대하여 그해 10월부터 12월 까지 동거를 하였다.

하지만 고갱과 고흐는 성격이 달라 동거 생활 내내 불화가 계속되었고, 결국 동거 두 달 만에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일로 고갱은 떠났고,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이 자화상은 고흐가 스스로 자신의 귀에 상처를 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다음, 귀에 붕대를 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을 보면, 고흐는 얼굴에 햇살을 받으며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고, 뒤쪽 배경에는 이젤 위의 그리다 만 그림과 일본풍의 액자가 걸려 있다. 그가 입고 있는 초록색 외투와 모자는 물감을 두껍게 발라서 거칠고 짧은 선으로 표현하였다.

고흐는 자화상을 30점 넘게 그렸는데 거울로 직접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사진을 보며 그리기도 하였다.

반 고흐(van Gogh, Vincent/네덜란드/1853~1890)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인상파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짧고 구불구불한 필채와 강렬한 색채로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었다. 대표작으로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아를의 침실」, 「자화상」 등이 있다.

15. 별이 빛나는 밤 (박 고희)



15. 별이 빛나는 밤 (밤 고흐)

작가 국적	네덜란드	작가 생몰년	1853 ~ 1890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73.7×92.1cm
제작 연도	1889년 작	작가 원어명	van Gogh, Vincent

별이 빛나는 밤(캔버스에 유채/73.7×92.1cm/1889년 작)

‘별이 빛나는 밤’은 고흐가 생 데미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밤하늘을 자신의 마음을 담아 그린 작품이다.

마을의 모습은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직접 밤하늘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고흐가 프랑스 아를 지방에 있을 때의 기억을 되살려 그린 것이다. 특히 교회는 고흐의 고향인 네덜란드를 떠올리게 한다.

고흐는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밤하늘은 실재로 밝지 않지만, 고흐는 밤하늘을 보면서 느낀 감정을 밝은색으로 표현하였다. 별들은 소용돌이치며 하늘

을 뒤덮고 있고, 왼쪽에 높이 솟아오른 사이프러스 나무는 불꽃처럼 타오른다. 조용하면서도 생동감이 있는 신비한 밤을 표현하였다.

반 고흐 (van Gogh, Vincent/네덜란드/1853~1890)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인상파의 대표적 인 화가이다. 짧고 구불구불한 필채와 강렬한 색채로 독자적인 화풍을 만들었다. 대표작으로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아들의 침실」, 「자화상」 등이 있다.

16. 병과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 (세잔)



16. 병과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 (세잔)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39 ~ 1906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62x79cm
제작 연도	1890 ~ 1894년 작	작가 원어명	Cezanne, Paul

병과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캔버스에 유채/62x79cm/1890~1894년 작)

이 작품은 바구니와 테이블 보 위에 놓여져 있는 사과, 중심에 놓여 있는 와인 병, 접시 위의 빵들 그리고 꾸겨져 있는 흰 테이블보 등을 그린 정물화이다.

사과 바구니는 상자 위에 있고, 쿠키는 접시에 정렬되어 있으며, 사과들은 아무렇게나 구겨진 흰색 천 위에 있다. 이 모든 정물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이 정물들의 배치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나, 각각의 위치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이는 형태를 갖추어 쌓여 있는 쿠키의 배열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정물들로 인해 중앙이 단절된 테이블의 좌측과 우측을 보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왜곡되어 있다. 테이블에 수평을 이루고 있는 사과들

과 바구니에 담긴 기울어진 사과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그려져 있으며, 이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전면에 배치된 구겨진 테이블보와 청동된 형태의 쿠키는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

- 출처: wikipedia commons

세잔(Cezanne, Paul/1839~1906/프랑스)

프랑스의 화가 세잔은 사람들에게 정물화를 미술 작품으로 인식시켰고, 자연의 모든 형태를 원기동과 구, 원뿔로 해석한 독특한 그림을 그렸다. 이런 특징은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입체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며 '근대 회화의 아버지'로 불렸다. 대표작으로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 「샹트 빅투아르 산」 등이 있다.

17. 타히티의 여인들 (고갱)



17. 타히티의 여인들 (고갱)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48 ~ 1903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69×91.5cm
제작 연도	1891년 작	작가 원어명	Gauguin, Eugène Henri Paul

타히티의 여인들 (캔버스에 유채/69×91.5cm/1891년 작)

「타히티의 여인들」은 마룻가에 앉아 있는 두 여인의 나른한 자세와 우수에 찬 시선을 그린 작품이다.

작품의 원편에는 흰색의 타아레(남태평양 폴리네시아 타히티에서 피는 꽃) 꽃무늬가 장식된 '파레오'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여인이 앉아 있다. 이 여인의 귀에도 옷의 무늬와 똑같은 꽃이 꽃혀 있어 여인의 아름다운 구릿빛 피부를 돋보이게 한다. 옆의 여인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종려나무 잎으로 무언가를 짜고 있는데 표정에서 우울함이 감돈다. 그러나 여인들의 표정과는 상관없이 황금빛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의 뒤편에는 에메랄드 빛 바다가 펼쳐지며 열대 지방을 연상케

하는 강렬한 색채로 현지의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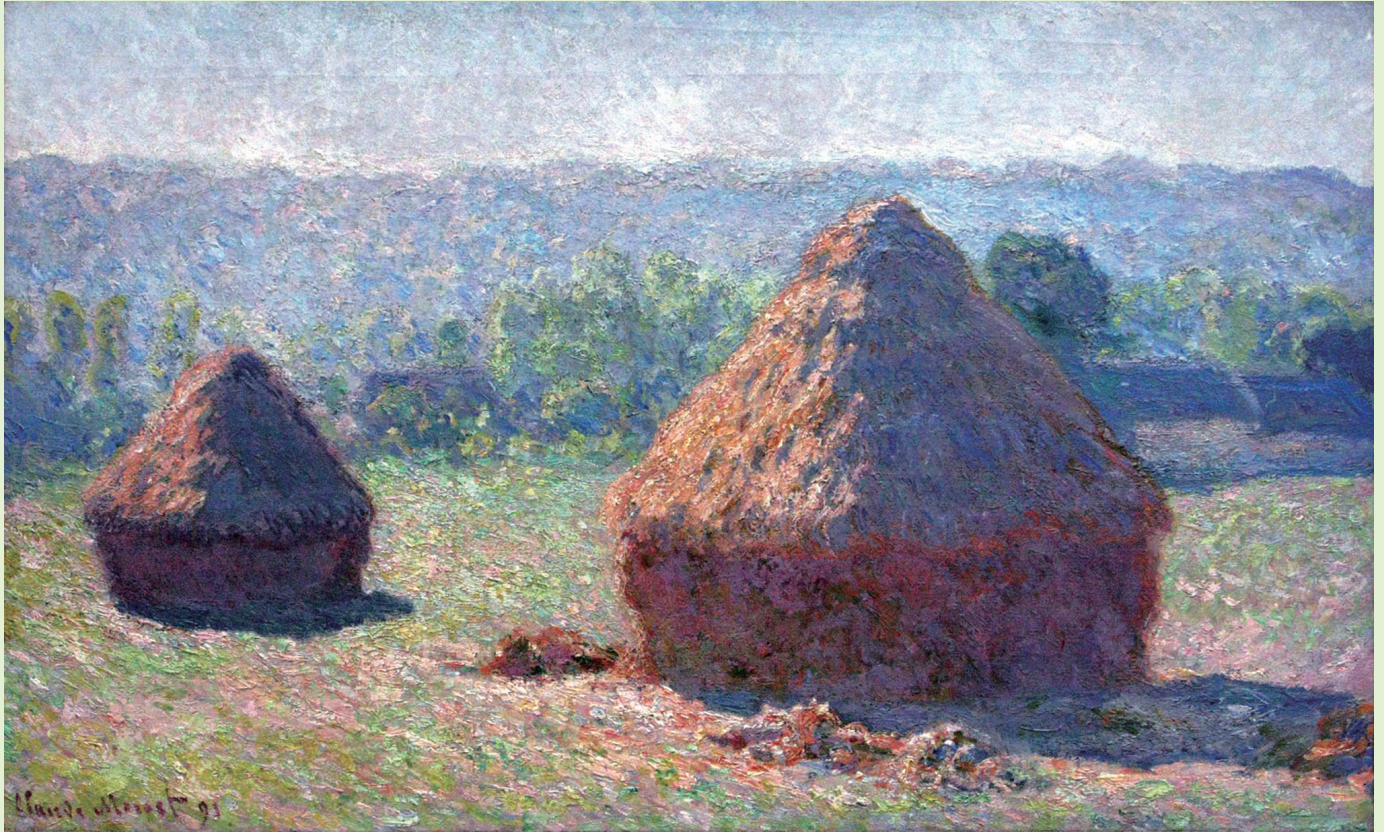
고갱은 1891년 그토록 동경하던 원시적인 삶을 찾아 떠나 남태평양 타히티섬에 정착하며 예술혼을 불태웠다. 이국적이고 야생의 원시적인 타히티섬에서 그는 생을 마감하였다.

- 출처: 무신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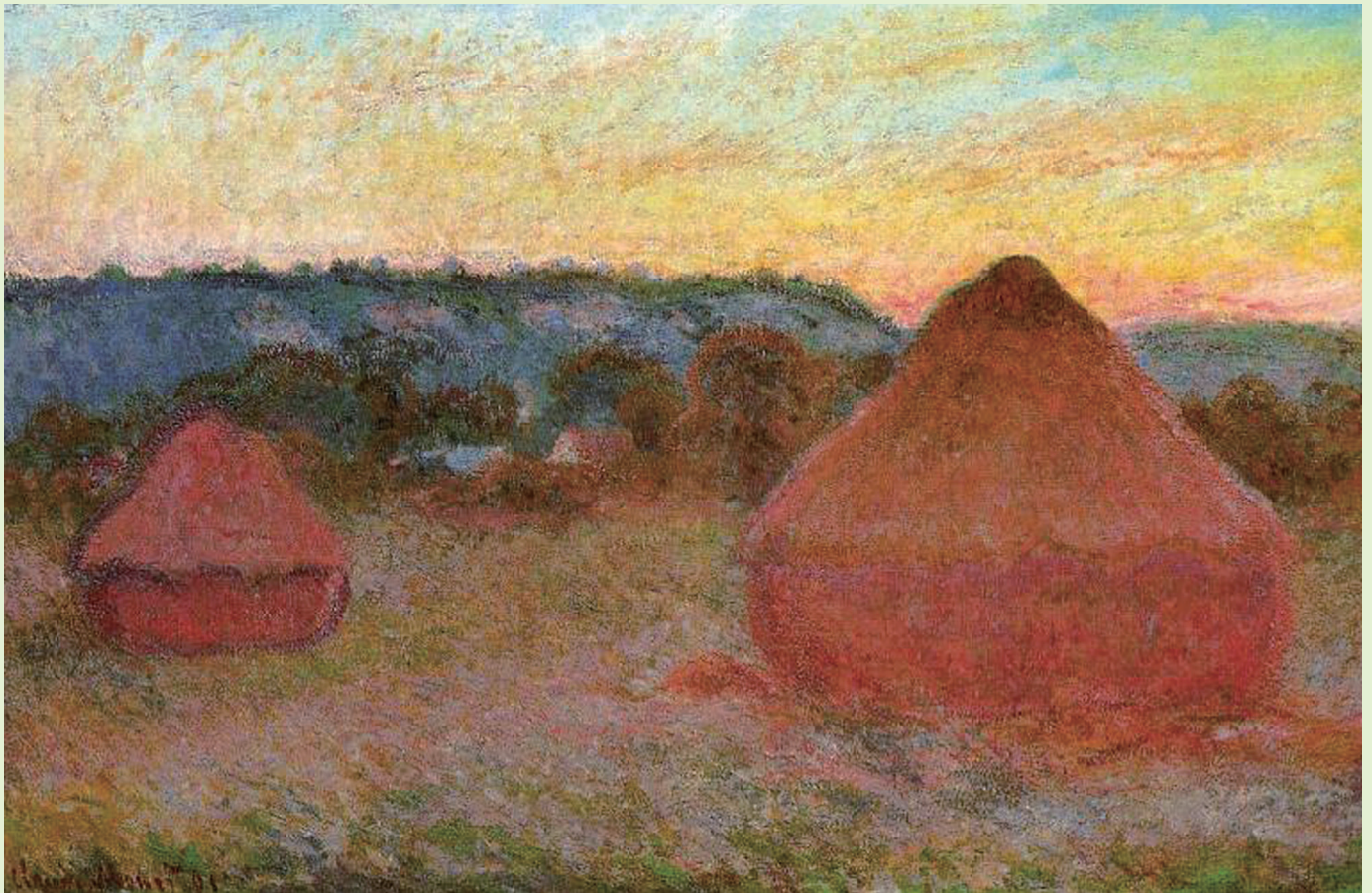
고갱(Gauguin, Eugène Henri Paul/프랑스/1848~1903)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후기 인상파 화가이다. 문명 세계에 대한 혐오감으로 남태평양의 타히티섬에 정착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황색의 그리스도」,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 「아메 마리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등이 있다.

18. 건초 더미 (모네)



1. 여름 끝자락의 건초 더미



2. 어느 가을의 건초 더미

18. 건초 더미 (모네)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40~1926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60.5×100.5/65×92cm
제작 연도	1891년 작	작가 원어명	Monet, Claude

1. 여름 끝자락의 건초 더미(캔버스에 유채/60.5×100.5cm/1891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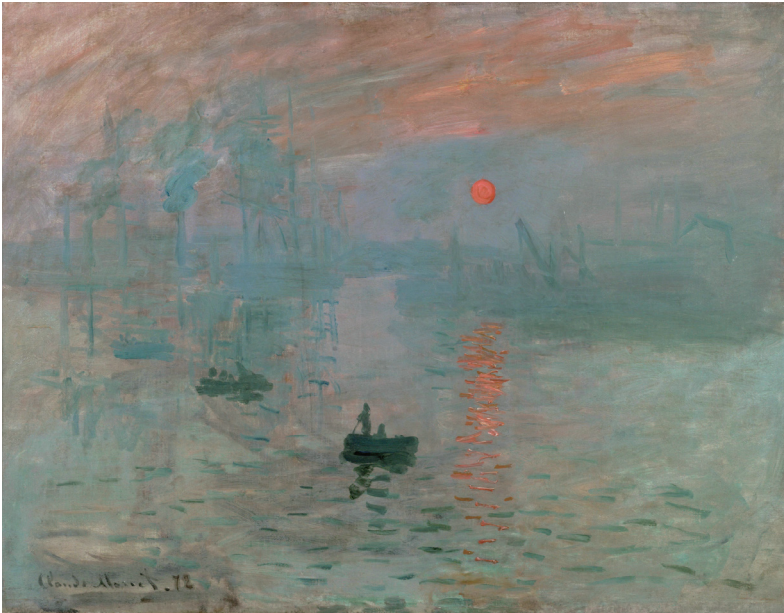
2. 어느 가을의 건초 더미(캔버스에 유채/65×92cm/1891년 작)

건초 더미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초 더미를 그린 모네의 대표 작품이다. 계절,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초 더미의 모습을 빛과 색채를 통해 다채롭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모네는 1884년부터 1886년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 그렸는데 연작 형태로 그린 것은 1890년부터였다. 시골의 한적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매우 잘 보여 주는 건초 더미 연작을 제작한 것이다.

이 두 작품은 늦여름과 가을의 건초 더미를 표현한 것으로, 위치와 시점을 바꾸어 가면서 늦여름과 가을의 건초 더미를 그린 것이다. 건초 더미 연작은 늦여름에서 겨울에 이르기까지 계절의 변화에 의해 달라지는 건초 더미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빛에 의해 변화하는 건초 더미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모네(Monet, Claude/프랑스/1840~1926)

인상주의 화가이자 인상파의 개척자인 모네는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으며, 대상의 형태를 그리기보다는 빛의 변화에 따른 순간적인 인상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인상파라는 명칭이 그의 작품 「인상, 해돋이」에서 비롯되었다. 같은 주제를 시간과 날을 달리하여 반복해서 그리며, 무수한 연작을 만들었다. 대표작으로 「루앙 대성당」, 「수련」 연작 등이 있다.



인상, 해돋이 (캔버스에 유채/63×48cm/1872년 작)

19. 수련 연못 (모네)



19. 수련 연못 (모네)

작가 국적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40~1926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89×93.5cm
제작 연도	1899년 작	작가 원어명	Monet, Claude

수련 연못(캔버스에 유채/89×93.5cm/1899년 작)

모네는 마흔세 살 되던 1883년 파리 근교에 있는 지베르니로 이사와 수련 연못을 조성하고, 1895년부터 「수련」 연작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가 죽기 전 30여 년 동안 연못의 수련을 그렸는데, 그것이 250여 점에 달한다.

이 작품은, 일본풍의 아치형 다리가 놓여 있는 연못 위의 수련을 그린 것이다. 잔잔한 수면의 연못에는 수련이 피어 있고 주변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다.

오랑주리 미술관(프랑스 파리)에 있는 「수련」 연작은 모네가 제1차 세계 대전의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한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자연에 대한 우주적인 시선을 보여준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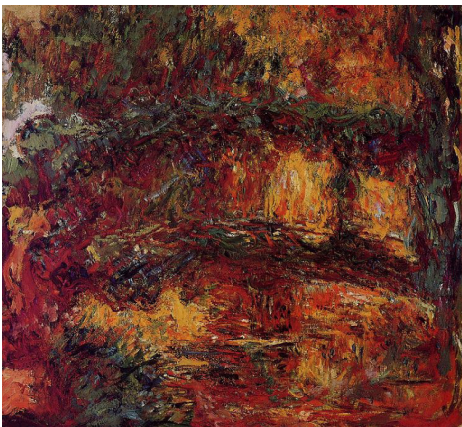
모네는 말년에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게 되었지만 그림 그리기를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말년(1920년 이후)에 그린 작품을 보면, 잘 보이지 않은 눈으로 그려서 형태가 뚜렷하지 않다. 그는 1926년 86세를 일기로 지베르니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 출처: 두산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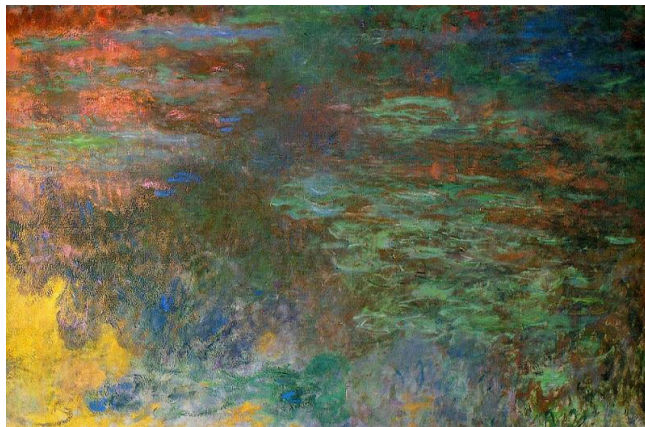
모네(Monet, Claude/프랑스/1840~1926)

인상주의 화가이자 인상파의 개척자인 모네는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으며, 대상의 형태를 그리기보다는 빛의 변화에 따른 순간적인 인상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인상파라는 명칭이 그의 작품 「인상, 해돋이」에서 비롯되었다. 같은 주제를 시간과 날짜를 달리하여 반복해서 그리며 무수한 연작을 만들었다. 대표작으로 「루앙 대성당」, 「수련」 연작 등이 있다.

[1920년 이후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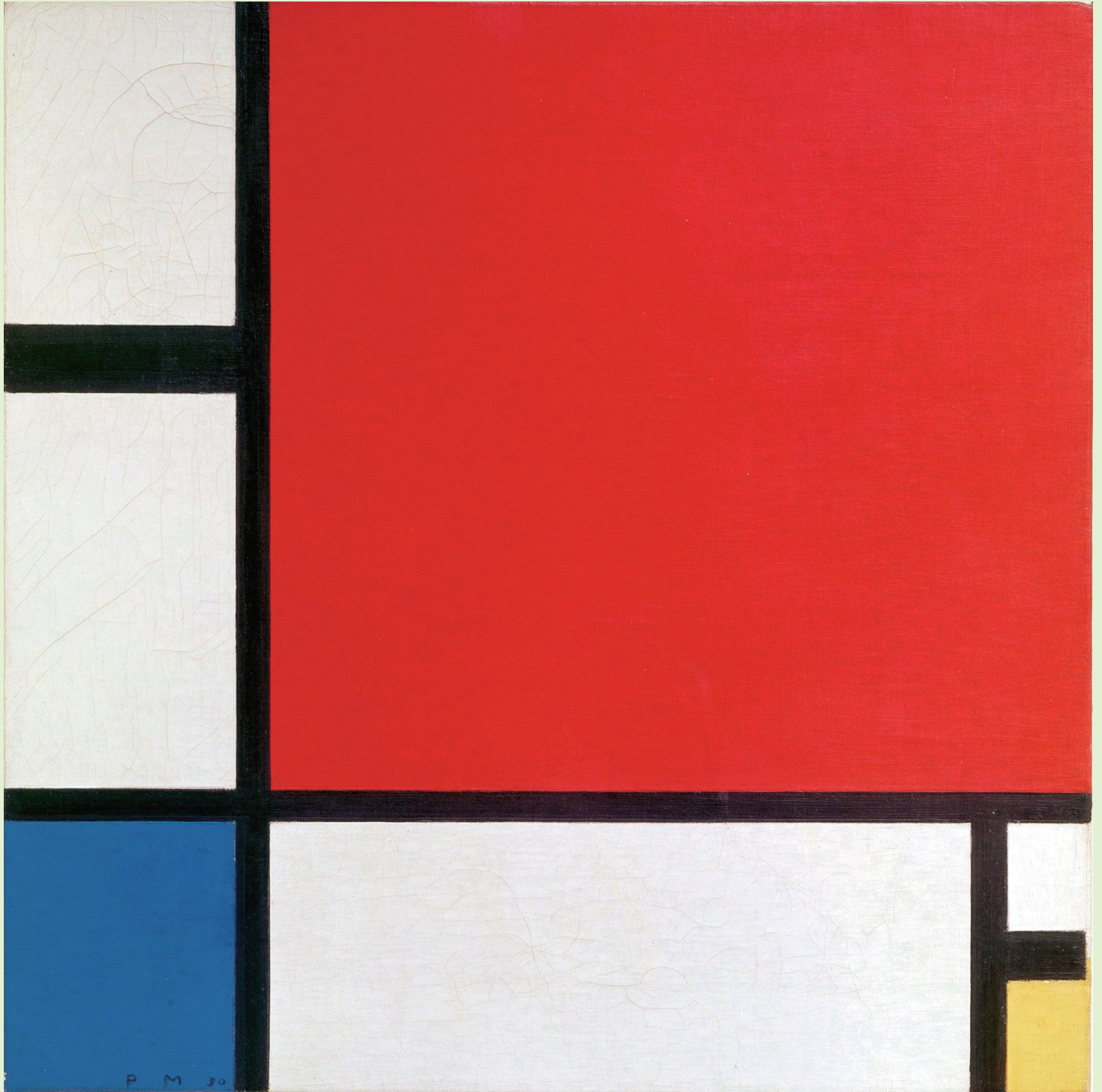


1923년 작



1926년 작

20.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몬드리안)



20.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몬드리안)

작가 국적	네덜란드	작가 생몰년	1872~1944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46×46cm
제작 연도	1930년 작	작가 원어명	Mondrian, Piet Cornelis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캔버스에 유채/46×46cm/1930년 작)

몬드리안은 추상 미술의 발전을 이끈 사람 중 한 사람이다. 그의 그림 중에는 가로와 세로의 검은 선과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을 사용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 작품도 그중 하나이다. 사각형 안에 빨간색이 삼 분의 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 흰색과 파랑, 노랑을 배치하였다. 작가는 그림의 전통적 핵심 요소인 선, 형, 색만을 이용하여 작품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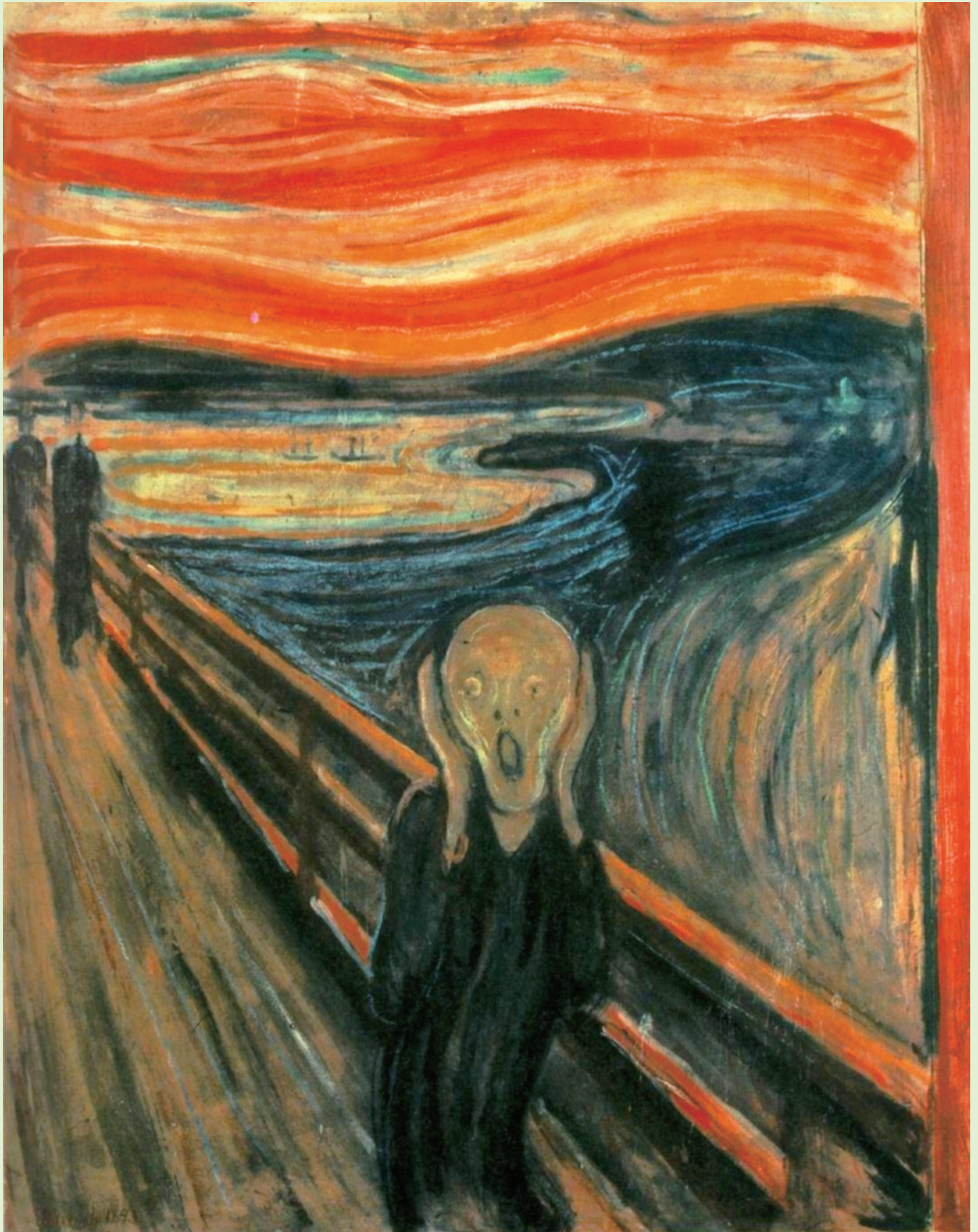
작품 속에 나타난 조형 원리와 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수직선과 수평선, 가늘고 긴 선과 굵고 짧은 선에서는 대비와 비례를 알 수 있고, 넓은 네모와 좁은 네모,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에서는 균형과 변화를 알 수 있다. 빨강, 노랑, 파랑의 색상과 검정, 하양의 무채색에서 강조와 조화를 느낄 수 있다.

몬드리안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작품은 미술과 건축, 그래픽디자인부터 패션에 이르기까지 예술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몬드리안(Mondrian, Piet Cornelis/네덜란드/1872~1944)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신조형주의 예술의 주창자이자 추상 회화 창시자의 한 사람이다. 직선과 직각, 삼원색과 무채색만을 사용하여 작품을 그렸는데, 이를 통해 '질서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대표작으로 「나무」 연작,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등이 있다.

21. 절규 (뭉크)



2. 절규 (몽크)

작가 국적	노르웨이	작가 생몰년	1863~1944
작품 재료	판지 위에 유화, 템페라, 파스텔, 크레용	작품 크기	91×73.5cm
제작 연도	1893년 작	작가 원어명	Munch, Edvard

절규(판지 위에 유화, 템페라, 파스텔, 크레용/91×73.5cm/1893년 작)

이 작품은 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몽크의 그림으로, 붉게 일렁이는 하늘을 배경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괴로워하는 인물을 그린 것이다. 작가는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곡선으로 표현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붉은 구름으로 나타내었다. 화면 하단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인물은 마치 유령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몽크는 깊은 좌절에 빠진 사람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형태의 왜곡을 하였다고 한다. 배경의 풍경은 노르웨이 오슬로의 이케베르크 언덕에서 보이는 오슬로 피오르이다.

다음 글은 1892년 몽크가 이 작품에 관해 남긴 글이다.

“친구 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해 질 녘이었고 나는 약간의 우울함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멈춰선 나는 죽을 것만 같은 피로감으로 난간에 기댔다. 그리고 핏빛 하늘에 걸친 불타는 듯한 구름과 암청색 도시가 있었다. 그때 자연을 관통하는 그치지 않는 커다란 비명 소리를 들었다.”

— 출처: 위키백과

몽크(Munch, Edvard/노르웨이/1863~1944)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화가로 어린 시절 경험한 가족의 죽음과 이로 인한 공포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작품의 주제가 되었다. 삶과 죽음, 사랑과 관능, 공포와 우수를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였다. 대표작으로 「병든 아이」, 「절규」 등이 있다.

22. 세네치오 (클레)



22. 세네치오 (클레)

작가 국적	스위스	작가 생몰년	1879~1940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40×38cm
제작 연도	1922년 작	작가 원어명	Klee, Paul

세네치오(캔버스에 유채/40×38cm/1922년 작)

커다란 둥근 얼굴, 익살스러운 눈, 조그만 입,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그림 같아 보이는 이 그림은 클레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며, 그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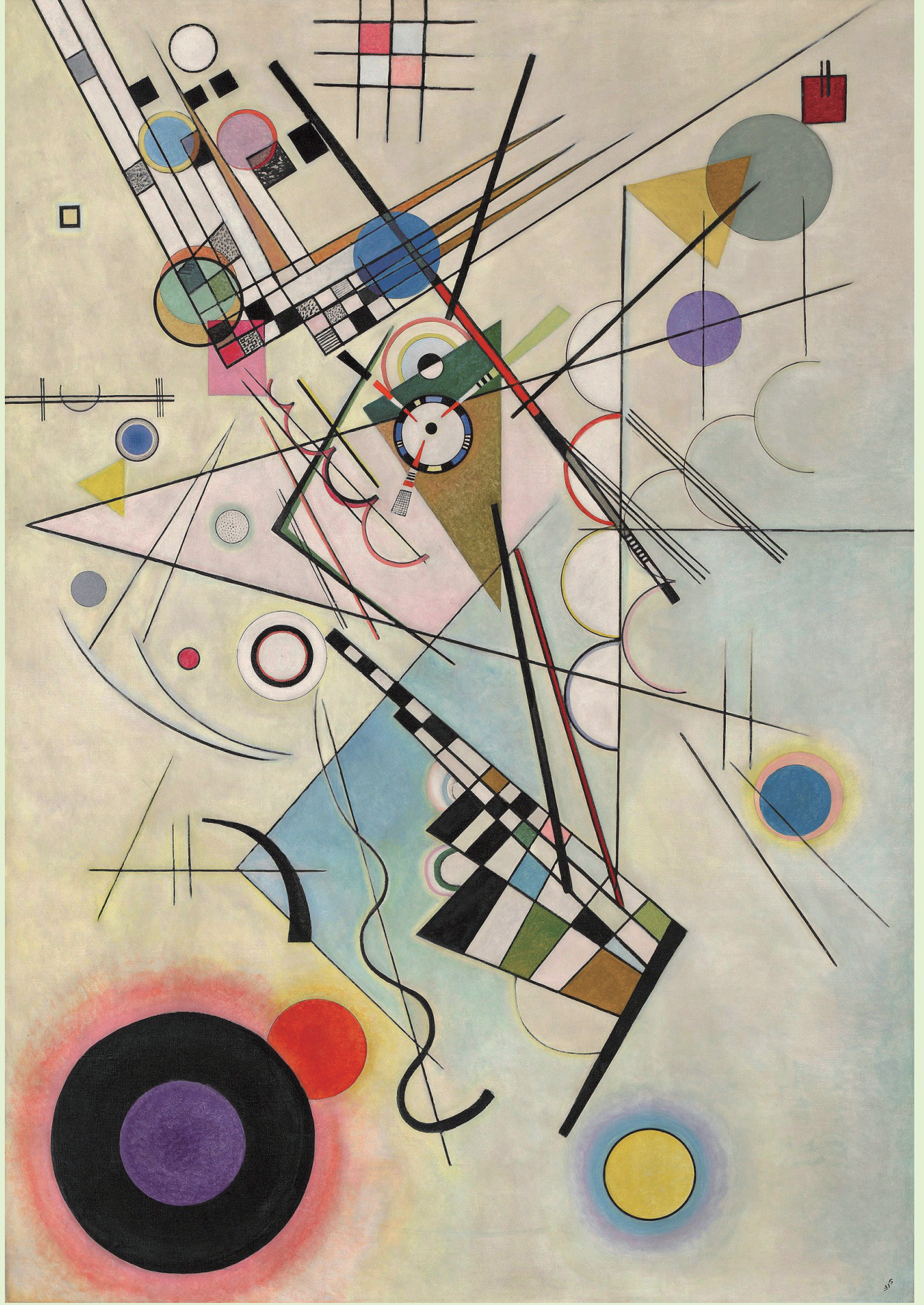
‘세네치오’는 아스트라체(astraceae)과에 속하는 식물의 속명으로 노란색의 이 꽃은 부드러운 털이 있어 일명 ‘노인네 수염’으로 불리며, 클레가 자화상에 ‘세네치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가 그림을 그릴 당시 근사한 턱수염을 길렀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두 개의 수평선과 한 개의 수직선이 커다란 원형의 얼굴을 여섯 개의 면으로 나누고 있다. 위쪽 수평선은 두 눈을, 아래쪽 수평선은 입을 지나고 있고, 왼쪽 눈꺼풀은 삼각형을, 오른쪽 눈꺼풀은 포물선을 그어 볼록하고 오목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입은 작은 사각형을 크고 작게 하여 대각선으로 배치하였다. 아이가 그린 것처럼 단순한 표현이지만 기하학적 형태와 흰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등의 따뜻한 색감으로 내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클레(Klee, Paul/스위스/1879~1940)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20세기 스위스의 초현실주의 화가이며 판화가이다. 클레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작품을 많이 남겼다. 클레와 칸딘스키는 독일의 바이마르에 설립된 조형 학교인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작으로 「아름다운 정원사」, 「세네치오」, 「죽음과 불」 등이 있다.

23. 구성 8 (칸딘스키)



23. 구성 8 (칸딘스키)

작가 국적	러시아 → 프랑스	작가 생몰년	1866 ~ 1944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140x201cm
제작 연도	1923년 작	작가 원어명	Kandinsky, Wassily

구성 8(캔버스에 유채/140x201cm/1923년 작)

칸딘스키는 1910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어 최초의 추상화를 제작하게 된다. 형태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대신 부드럽고 힘찬 느낌을 형과 색으로 표현하였다.

칸딘스키의 대표 추상 작품으로 즉흥, 인상, 구성 시리즈가 있는데, 이 작품은 10점의 '구성' 시리즈 중 하나이며, 칸딘스키 예술 세계의 중심을 차지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가늘고 날카로운 직선과 동글고 구불구불한 곡선들이 서로 교차하고, 다양한 크기와 색채의 원이 어우러져 마치 공간 속에서 울어지는 역동적인 음악의 선율을 보여주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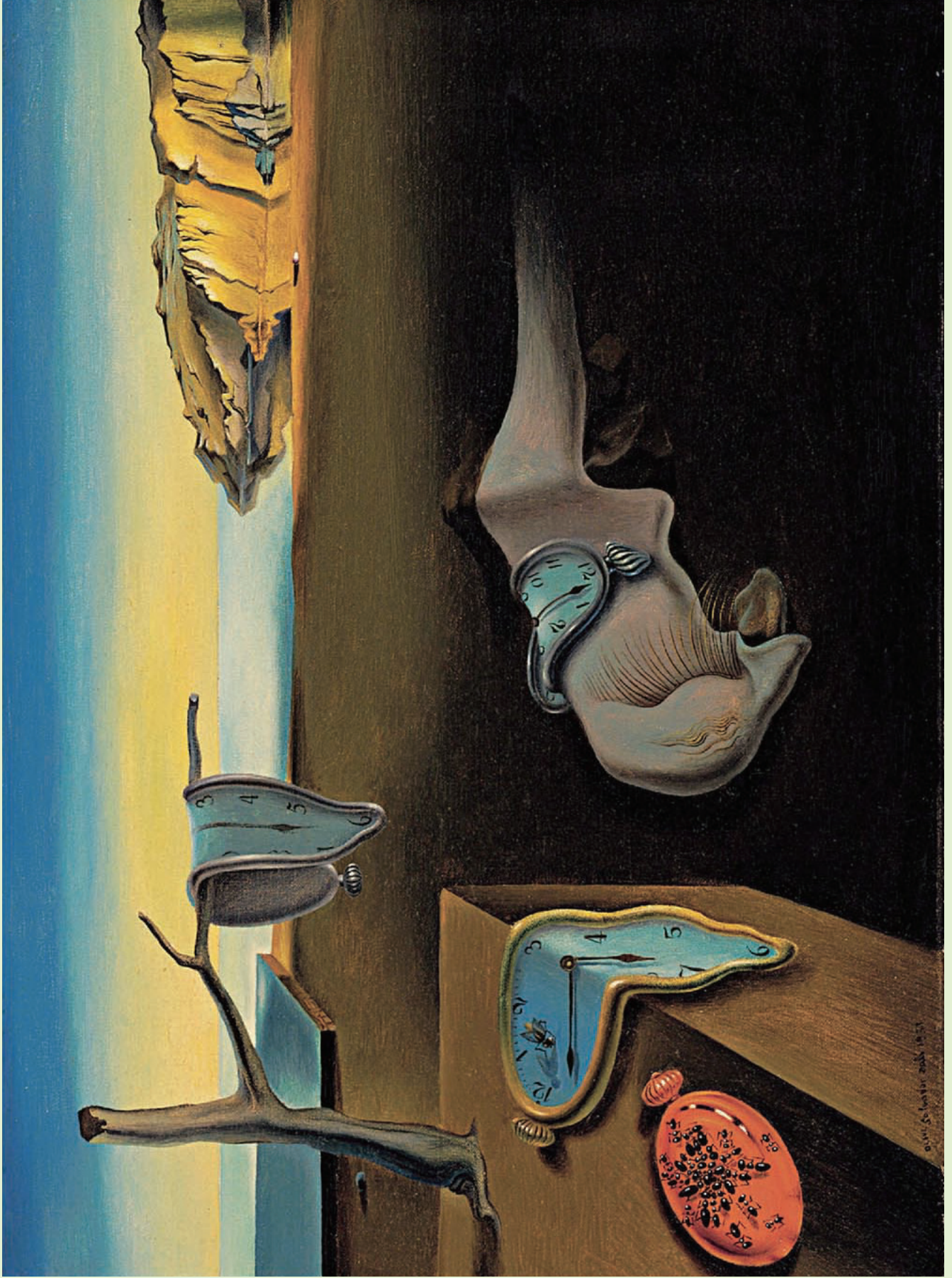
추상회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는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이다. 이 두 작가는 종종 추상회화에서 비교하는데, 선과 면의 기하학적 요소로 표현한 몬드리안의 그림을 '차가운 추상'이라고 하고, 자신의 내면의 감흥이나 감동을 표현한 칸딘스키의 그림을 '뜨거운 추상'이라고 한다.

칸딘스키는 '현대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듯이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을 선명한 색채로 음악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작품에 음악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는 회화에서도 색채나 선만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 → 프랑스/1866~1944)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으며, 대학에서 법과 정치를 공부하던 중 인상파 전시회에서 마네의 그림을 본 후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30세에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 러시아를 떠나 주로 독일에 살면서 그림과 글을 쓰면서 지냈으며, 1910년 '최초의 추상 수채화'라는 작품으로 본격적인 추상미술 시대를 열었다. 대표작으로 「즉흥」과 「인상」, 「구성」 시리즈 등이 있으며, 몬드리안과 더불어 '현대 추상회화의 창시자'로 불린다.

24. 기억의 지속 (달리)



24. 기억의 지속 (달리)

작가 국적	에스파냐 → 미국	작가 생몰년	1904 ~ 1989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작품 크기	24x33cm
제작 연도	1931년 작	작가 원어명	Dali, Salvador

기억의 지속(캔버스에 유채/24x33cm/1931년 작)

이 작품은 달리의 초현실주의 대표 작품이며 작가의 무의식을 그린 것이다.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왜곡되어 기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무의식 속에 나타난 잠재된 욕망을 이와 같은 사물로 표현한 것이다. 영원과 스멜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의식을 나타낸 작품이다.

맨 윗부분에는 밝고 어두운 바다가 있고 그 옆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다. 아래에는 약간 어두운 빛으로 지속되는 평원의 풍경이 있다. 왼쪽에는 관 모양의 거대한 상자가 있으며, 마치 상자에서 자라난 것 같은 기지만 남은 죽은 나무가 있다.

화면 중간과 하단에는 호물거리는 시계가 3개 있는데, 하나는 나무에 걸려 있고 다른 하나는 상자에 반쯤 걸쳐 있다. 나머지는 죽은 말인지 아니면 어떤 이의 눈썹이 있는 얼굴 반쪽인지 모를 곳에 얽혀 있다. 유

일하게 정상적인 형태의 시계는 상자 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시계 안에는 개미들이 있고 상자에 걸쳐 있는 시계에도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다.

이 작품을 보면,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군가의 시계는 치즈처럼 부드러워 녹아내린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 의해 시간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출처: 두산백과

달리(Dali, Salvador/에스파냐 → 미국/1904~1989)

에스파냐 태생의 미국 화가이다. 초현실주의 회화의 대표적 화가로, 꿈·환상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미국에 머물면서 상업 미술, 영화, 발레 등에도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내란의 전조」, 「바닷가에 전화기」, 「늘어진 시계」 등의 작품이 있다.

25. 전 신사임당필 초충도 (신사임당)



25. 전 신사임당필 초충도 (신사임당)

작가 국적	한국	작가 생몰년	1504 ~ 1551
작품 재료	종이에 채색	작품 크기	136x408.8cm(전체 크기)
제작 연도	조선 시대	작가 원어명	-

전 신사임당필 초충도(종이에 채색/136x408.8cm/조선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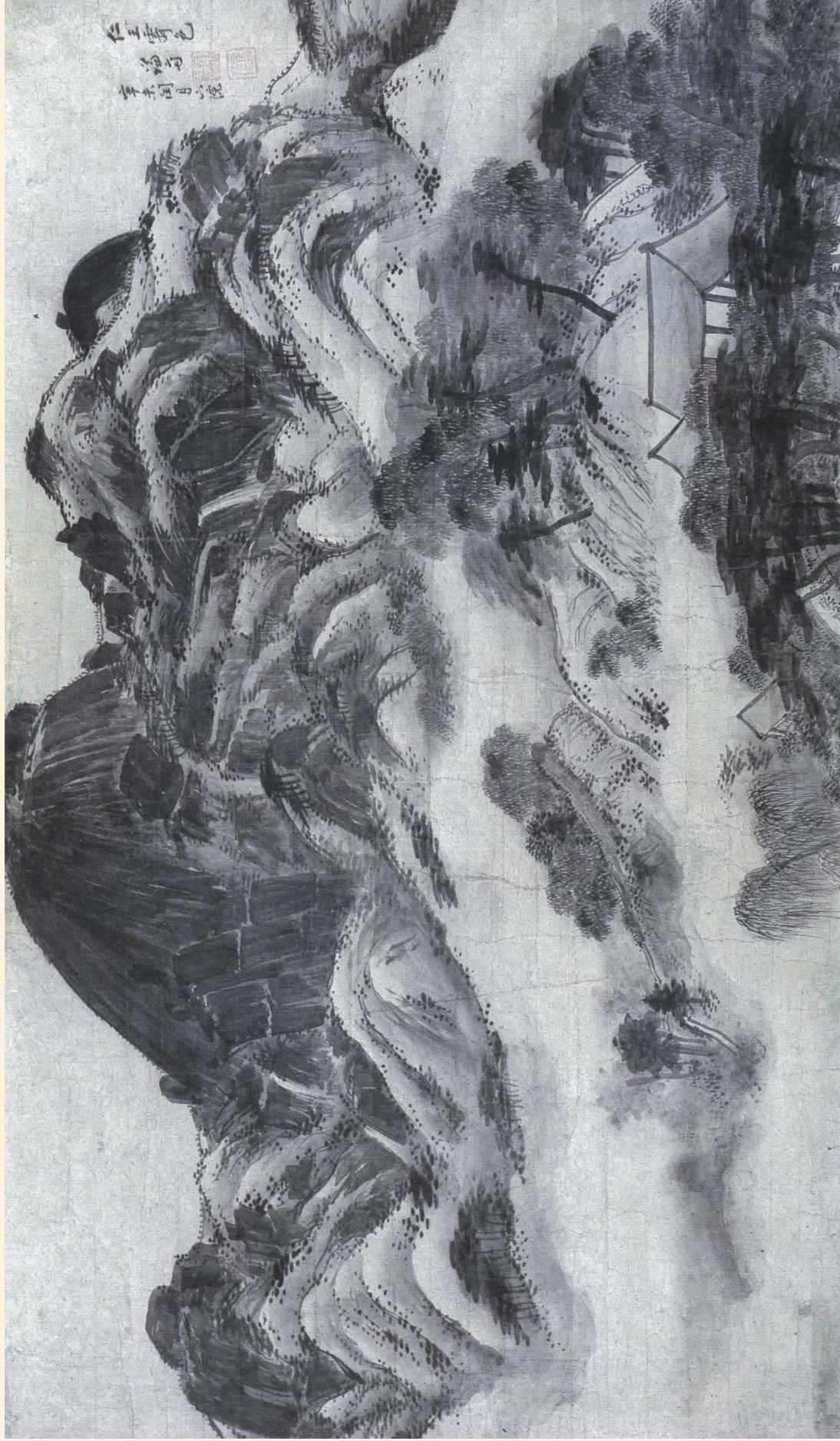
이 작품은 신사임당이 그린 여덟 폭 병풍의 초충도이다. 초충도는 풀과 벌레를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을 말한다. 꽃과 새를 그린 것을 화조화, 꽃과 풀을 그린 것을 화훼화, 깃과 털이 달린 짐승을 그린 것을 영모화라고 한다. 이 초충도는 섬세한 필선, 선명한 채색, 안정된 구도가 잘 어우러진 작품이다.

- 1폭 「수박과 들쥐」는, 땅 위에 수박과 패랭이꽃이 있으며 수박을 파 먹고 있는 생쥐 두 마리와 꽃 주변을 나는 한 쌍의 나비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여름의 경치를 그린 것으로, 씨가 많은 수박이나 패랭이꽃은 장수를, 한 쌍의 나비는 부부의 화목을 의미한다.
- 2폭 「가지와 방아깨비」는, 그림 한가운데 가지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오른쪽에는 방아깨비와 두 마리의 벌이 있고, 왼쪽에는 뽕말기와 쇠비름, 두 마리의 개미, 가지 위아래에는 두 마리의 나비가 있다. 주렁주렁 달린 가지는 다자(多子)와 다복을 상징하고 한 쌍의 나비는 부부간의 화목을, 한 쌍의 벌도 역시 같은 의미가 있다.
- 3폭 「오이와 개구리는, 땅에 닿을 듯한 통통한 오이와 풀꽃, 개구리, 여치, 그리고 오이 주변을 날아다니는 벌이 있어 늦여름을 의미한다.

씨가 많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오이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 4폭 「양귀비와 도마뱀」은, 화사한 자태의 양귀비꽃과 앙증맞은 패랭이꽃 양쪽으로 허얀 나비 한 쌍이 날고 있으며, 땅 위에는 도마뱀과 하늘소가 기어가고 있다.
- 5폭 「추규와 개구리는, 접시꽃으로 알려진 추규 옆에는 도라지 꽃이 피어 있고, 꽃 위로는 잠자리와 나비가, 아래에는 개구리와 메뚜기가 놀고 있다.
- 6폭 「맨드라미와 쇠똥벌레」는, 빨간 맨드라미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파꽃이 피어 있고, 오른쪽에는 쇠똥을 굴리는 세 마리의 쇠똥구리와 세 마리의 허얀 나비가 날고 있다. 맨드라미는 관운의 행운을 상징하고 세 마리의 나비와 세 마리의 개똥벌레는 이들의 숫자를 상징한다.
- 7폭 「여뀌와 검은 잠자리」는, 여뀌와 메꽃이 중심에 있고, 위쪽에는 검은 잠자리와 벌 한 마리가, 땅에는 사마귀가 거닐고 있다.
- 8폭 「원추리와 매미」는, 근심을 잊게 하는 풀로 알려진 원추리의 줄기에는 덩치 큰 매미가 매달려 있고, 꽃 주변에는 두 마리의 나비와 벌이 날고 있으며, 개구리와 달팽이도 보인다.

26. 인왕제색도 (정선)



26. 인왕제색도 (정선)

작가 국적	한국	작가 생몰년	1676~1759
작품 재료	종이에 수묵	작품 크기	79.2×138.2cm
제작 연도	1751년 작	작가 원어명	-

인왕제색도(종이에 수묵/79.2×138.2cm/1751년 작)

이 작품은 겸재 정선이 비 내린 뒤의 인왕산을 그린 산수화이다. 정선이 「인왕제색도」를 그린 때는 조선 영조 27년인 1751년이다. 이때 정선의 나이는 76세였다.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평생을 사귄 벗이었던 이병연이 병에 걸려 위중해지자 그의 집을 방문하여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관념적인 풍경이 아닌 실제 풍경을 화폭에 담은 진경산수화(우리의 산하를 실계로 보고 화폭에 담은 것)의 대표작이다. 검은 먹을 사용하여 비 온 뒤 인왕산의 기암괴석을 전체적으로 그려

고 바위 틈새를 흰 선으로 표현해 사실감을 더했다. 정선의 진경산수는 북종화와 남종화를 종합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출처: 위키백과

정선(한국/1676~1759)

조선 시대 화가로 호는 겸재이다. 산수화에 뛰어났고,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 화법을 개발하여 진경산수화를 완성하였다. 조선 시대 회화에 서 가장 주목받았던 화가 중의 한 사람이다. 대표작으로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입암도」, 「충석정」 등이 있다.



27. 서당 (김홍도)

작가 국적	한국	작가 생몰년	1745~?
작품 재료	종이에 수묵담채	작품 크기	26.9×22.2cm
제작 연도	조선 시대	작가 원어명	-

서당(종이에 수묵담채/26.9×22.2cm/조선 시대)

이 그림은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 그림 중의 하나이다. 이 도첩에는 당시 풍속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예리한 관찰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실려 있다. 「서당」은 조선 시대 서민들의 일상을 나타낸 풍속화로, 서당을 배경으로 인물들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작품이다.

쪼그리고 돌아앉아 흘쩍이는 학동을 화면의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방건(方巾)을 쓰고 유생의 옷차림을 한 훈장을 축으로 학동들을 둥글게 배치하였다. 화면의 구성이나 생략된 배경, 옷주름의 펼치, 얼굴 모습 등 모두가 현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준다.

서러움이 완연한 학동의 표정도 재미있지만, 주변 인물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에도 정감이 넘쳐나,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머금게 한다.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위키백과

김홍도(한국/1745~?)

한국적 풍속화로 조선 시대 4대 화가에 꼽히는 화가이다. 당시 회화의 주류인 산수화와 풍속화를 비롯해 새, 동물, 인물은 물론 불화와 판화에 이르는 모든 장르에 걸쳐 두루 명작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단원 풍속도첩』, 「행려풍속도」, 「송월도」, 「단원도」, 「마상청앵도」 등이 있다.



28. 무동 (김홍도)

작가 국적	한국	작가 생몰년	1745~?
작품 재료	종이에 수묵담채	작품 크기	26.8×22.7cm
제작 연도	조선 시대	작가 원어명	-

무동(종이에 수묵담채/26.8×22.7cm/조선 시대)

이 작품은 춤을 추는 아이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연주하는 악사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림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삼현육각(북, 장구, 피리(2개), 대금, 해금)으로, 무동이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악사들을 둘러보면 첫 번째 악사는 북을 치면서 다른 연주자를 보고 있고, 두 번째 악사는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갓을 눌러 쓰고 열심히 장구를 치고 있으며, 세 번째 악사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심히 피리를 불고 있다. 네 번째 악사는 불을 부풀려 힘껏 피리를 불며 무동을 쳐다보고 있고, 다섯 번째 악사는 진지한 얼굴로 대금을 불고 있으며, 마지막 여섯 번째 악사는 뒷모습만 보이지만 몰입해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동은 두 팔의 한삼 자락을 멀리 위 오른쪽으로 감아주고 오른발을 번쩍 들어 도약하는 경쾌한 발동작, 그리고 얼굴엔 웃음 띠고 왼쪽으로 숙인 고갯짓을 통해 춤의 절정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채색할 때도 무동에게는 짙고 순도가 높은 색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표현 기법의 변화를 통하여 중심인물을 생동감 있게 부각하였다.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김홍도(한국/1745~?)

한국적 풍속화로 조선 시대 4대 화가에 꼽히는 화가이다. 당시 회화의 주류인 산수화와 풍속화를 비롯해 새, 동물, 인물은 물론 불화와 판화에 이르는 모든 장르에 걸쳐 두루 명작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단원풍속도첩』, 『행려풍속도』, 『송월도』, 『단원도』, 『마상청앵도』 등이 있다.

29. 연소담청 (신윤복)



29. 연소담청 (신윤복)

작가 국적	한국	작가 생몰년	1758~?
작품 재료	비단에 채색	작품 크기	28.2x35.6cm
제작 연도	조선 시대	작가 원어명	-

연소담청(비단에 채색/28.2x35.6cm/조선 시대)

연소담청이란 ‘젊은 선비들이 푸른 새싹을 밟는다.’는 뜻으로, 조선 후기 반가의 젊은 양반이 봄나들이를 간다는 의미이다. 이 작품은 봄기운이 감도는 계절에 양반과 기녀들이 소풍을 가는 모습을 섬세한 필치로 그렸다. 여기에는 3쌍의 남녀와 2명의 몸종, 3마리의 말이 보인다.

오른쪽에 있는 한 쌍을 보면, 기녀가 말 위에 앉아 있고 머리에는 진달래꽃을 꽂고 있으며 곱방대를 입에 물고 있다. 기녀와 한 쌍인 남자는 기녀가 탄 말의 고삐를 잡고 홀모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이 남자는 것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부리는 마부의 모자까지 뺏어 쓰고 채찍과 함께 왼쪽 다리에 끈까지 동여매고 있다.

또 다른 한 쌍은 자신의 에인을 위해 곱방대를 공손히 들고 있고 기녀는 쭈스려운지 왼손을 머리에 두고 오른손으로 곱방대를 달라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애교 섞인 눈웃음으로 심부름시키는 기녀와 그녀의 부를에 답하는 젊은 양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래 마지막 쌍은 말 위에 얼굴을 가린 기녀와 약속 시간보다 늦었는 지 것을 바로 쓸 생각도 하지 않고 옷자락을 휘날리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연소담청은 신분 계급이 엄격했던 조선 후기 양반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신윤복(한국/1758~?)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로 김홍도, 김득신과 더불어 조선 시대 3대 풍속 화가이다. 양반층의 풍류와 남녀 간의 연애, 기녀와 지방의 세계를 도시적 감각과 해학으로 펼쳐 보였다. 가늘고 유연한 선과 원색의 산뜻하고 또렷한 색채 사용, 현대적인 구도와 독특한 상황 설정으로 조선 시대 풍속화의 영역을 넓혀 주었다. 대표작으로 『미인도』와 『풍속화첩(단오풍경, ‘연당의 여인’, ‘쌍검대무’, ‘진유도’)』 등이 있다.

- 출처: 두산백과

30. 고양이와 참새 (변상벽)



30. 고양이와 참새 (변상벽)

작가 국적	한국	작가 생몰년	1763년경
작품 재료	비단에 수묵담채	작품 크기	93.9×43cm
제작 연도	조선 시대	작가 원어명	-

고양이와 참새(비단에 수묵담채/93.9×43cm/조선 시대)

18세기에 활약한 변상벽은 화원 화가로, 인물과 짐승 그림에 뛰어났는데, 특히 고양이와 닭 그림을 잘 그려 ‘변고양’과 ‘변계’라는 별명을 얻었다. 변상벽은 고양이를 잘 그려서 별명이 변고양이었으며 초상화 솜씨가 대단해서 당대의 ^{*}국수(國手)라고 일컬었다.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고양이와 참새」는 희롱하는 한 쌍의 고양이와 다급하게 지지귀는 참새 떼의 모습을 섬세한 필치로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또한, 새순이 돋은 고목의 연초록 나뭇잎을 먹을 듬뿍 찍은 붓으로 대담하고도 멋지게 그려내어 동물들의 섬세한 묘사와는 대조적인 기운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영모화로, 조선 초기 이암 등에 의해 이룩된 한국적 ^{*}영모화의 전통을 계승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국수(國手):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

^{*}영모화: 새와 동물을 소재로 그린 그림

변상벽(한국/1763년경)

조선 시대 때 도화서 출신의 직업 화가이다. 초상화를 잘 그렸으며, 1763년과 1773년 두 차례 영조 어진 제작에 참여하였다. 초상화와 함께 고양이를 잘 그렸고, 고양이뿐만 아니라 닭이나 개 등 영모화에도 뛰어났다. 대표작으로 「화조묘구도」, 「고양이와 참새」, 「암탉과 병아리」 등이 있다.



모견도(종이에 수묵담채/163×55.5cm/
조선 시대) 이암(한국/1499~?)